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

보도	2023.10.10.(화) 조간	배포	2023.10.6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최상두	(02-3145-7012)
	자산운용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현덕	(02-3145-7620)
	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총괄반	책임자	단 장	장창호	(02-3145-7830)
		담당자	반 장	박시문	(02-3145-7832)

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실시
-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방식을 혁신하여
자본시장의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. -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,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음
-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,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
-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*·복합화**되는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

*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회사를 통한 연계거래나 SPC, 사설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사항 은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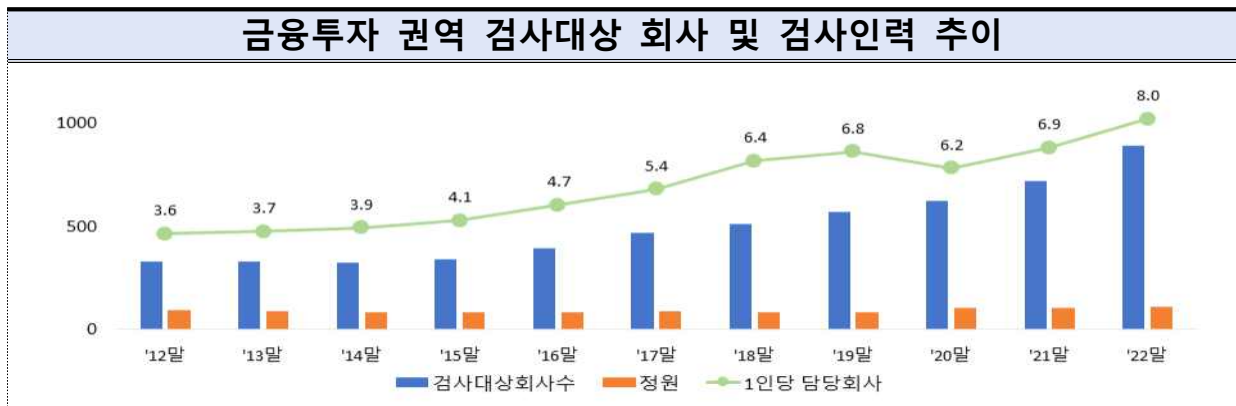
** 상품 출시·판매·운용에 자산운용사, 판매사, 신탁사, PBS(증권사) 등 다수 금융회사가 관여

➡ 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임

II. 자본시장 감사환경의 변화

- **(검사대상회사 급증)** 검사대상회사가 '12년말 328사에서 '22년말 893사로 급증하였으나 감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

* 증권·선물사, 운용사, 자문사, 신탁사 기준



- ▶ **검사수요와 인력간 불균형이 심화**(1인당 담당회사 : '12년 3.6사→'22년 8사) 되어 사전예방적 검사 및 긴급 검사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

- **(자산운용업계 불법 확대)**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동 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

- ▶ **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**(이하, '사모단')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('20.5월 既등록된 233사)를 위한 TF 한시조직*으로 신규진입 운용사('23.9월말 153사 순증가) 등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

* 전수검사 실시 이후 '23년말 운영기한이 종료될 예정

- **(복합연계사건 증가)** 최근 상품 출시-판매-운용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과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를 경유하여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크게 증가

- ▶ **금융투자부문 검사부서는 주로 소관 업권에 대해 검사***를 실시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

* 예시)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: 판매사→금투검, 공모운용사→자운검, 사모운용사→사모단

III. 감사체계 개편 방안

1

감사역량 강화

- ✓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감사부서간 업권구분을 폐지, 실제 감사현장에 투입되는 **감사 전담인력**을 대폭 **증원**(30% ↑)

□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감사 1·2·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하여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

- 특히,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*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 구축

* 예시) 한투 관련 계열사[지주증권·부동산신탁·운용·리얼에셋·밸류운용]는 감사3국 배정
NH 관련 계열사[증권·선물·아문디운용·햇지운용]는 감사2국 배정

□ 증권사·운용사의 대내외 감사정보를 모두 집적·분석·평가하는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감사정보 활용을 극대화

- 기획(조정)팀은 감사정보를 바탕으로 감사 착수여부, 범위, 인력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
- 감사팀은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(Feed-Back)하여 『감사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』 구축

※ 기존에 상시감시팀이 수행하던 핸디지표 등 정기분석 업무는 감독국으로 이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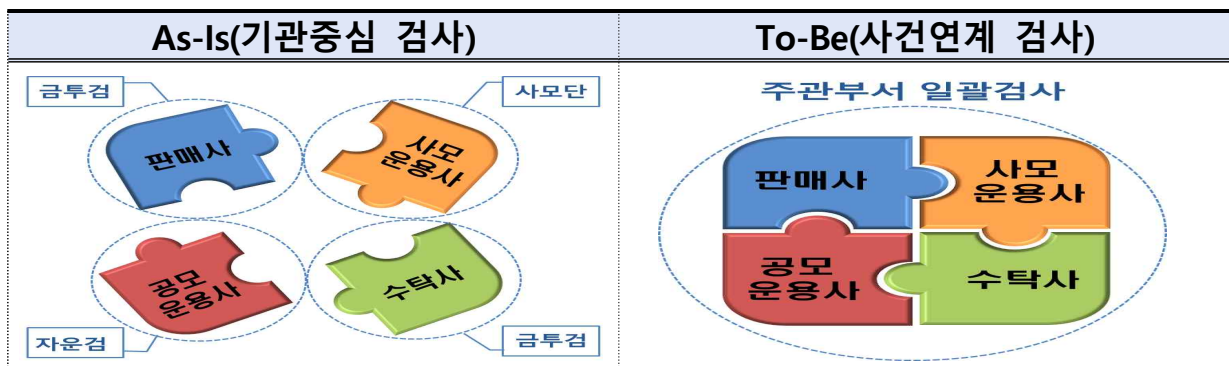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,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하여 검사팀을 15개(현재 13개)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



2 검사방식의 혁신적 변화

✓ '기관중심 검사'에서 '사건연계 검사'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
중대·긴급·취약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투입

-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'기관중심 검사'에서 특정 사건 발생시 그룹·계열·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
-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하여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



□ 아울러 중대·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

- 우선,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여력을 집중하여 참여

➔ 당초 계획하였던 『사모운용사 전수검사』를 완료할 예정

3 부실·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 도입

✓ **중대한 법규위반** 행위에 대해 즉시 **등록취소**(원스트라이크아웃)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**부실회사**는 적시에 **직권말소**

□ 그간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부실·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, 향후 상시퇴출 활성화

- ①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, 대규모 횡령·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*하고 ②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 강화

*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3] 개정 추진

자유로운 진입/경직적 퇴출

◆ 최근 5년간 사모운용·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사에 달하나, 이중 등록취소·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사에 불과

최근 5년간('18.7월~'23.6월) 운용·자문(일임)사 진입·퇴출 내역

구분	진입(A)	퇴출(B)				순증 (A-B)
		자진폐지	직권말소	등록취소	합계	
사모운용	211사	10사	0사	3사	13사	198사
자문·일임	241사	38사	3사	6사	47사	194사
합계	452사	48사	3사	9사	60사	392사

IV. 향후 계획

-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'23.10.13. 시행할 예정이며,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음
 - ※ 금융회사별 소관부서, 담당 RM 등에 대해 CPC 발송, 면담 등 진행 예정
-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
 -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